

화순 도곡서 20~21일 제1회 농특산물 대축제

고인들 봄꽃축제 연계 행사 시식회·직거래장터 등 다채

제1회 화순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가 오는 20~21일 열린다. 화순의 대표 축제인 고인들 축제와 동반해 파격 형태로 시도되는 도곡의 지역 축제가 성황리에 마치게 되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연쇄효과'도 기대된다.

2일 화순군에 따르면 도곡면 번영회(회장 차주성)가 '2024 화순 고인들 봄꽃축제의 동반축제로 20일과 21일 이틀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를 추진한다. 도곡면은 고인들 역사·문화자원 이외에도 미니파프리카 등 특화농업이 발달해 지역의 소득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도곡 번영회는 도곡면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 6개 단체와 협력해 축제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

도곡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 홍보 목적의 △농특산물 시식회 △비빔밥 퍼포먼스 △메이저 체험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번영회는 제1회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를 통해 도곡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고 맛 좋은 고품질의 우수 농특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오소 1000원-농산물 1만 세트 △소고기 부위별 할인 판매, 쌀 500g 무료

제공 △부스 방문객 600인 무료 비빔밥 제공 등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김수진 도곡면장은 "도곡 농특산물 축제를 통해 2024 화순 고인들 봄꽃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볼거리 및 먹거리를 충족시키고, 고인들(봄·가을꽃) 축제와 더불어 도곡 농특산물 대축제가 더욱 매력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 준비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 운영 영광군, 3대 추가 설치

영광군은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해주는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재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 현재 설치된 3대를 비롯해 이번에 3대를 추가 설치, 총 6대를 운영한다.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는 △만남의 광장 △영광읍사무소 △(구)우시장 공영주차장(축협하나로마트 인근)에 설치돼 있다.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 이용 방법은 모바일 앱 '캔가루'에 회원가입 후 무인수거자판기에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거나 교통카드(캐시비)를 인식하고 재활용품을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재활용품을 인식해 개당 10원씩 적립된다. 적립된 적립금은 2000원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활용품 무인수거자판기에 투입 가능한 품목은 음료수 캔(통조림 캔이나 망가진 캔 제외)과 투명 페트병이다. 투명 페트병은 상표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투명 페트병으로 500ml부터 2l 까지 모두 인식이 가능하다. **영광=김도윤 기자**

함평 손불면 주거환경 개선 욕실·도배·장판 교체 등

함평군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지적 장애 가구를 방문해 욕실 개선, 도배·장판 교체, 집안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조직된 민·관 협력 봉사대로 이번 봉사활동에서 손불면 지역사회협의체와 협력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백형갑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동네의 소중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 일처럼 살피고 앞장서는 복지공동체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복지공동체의 이웃사랑 봉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성풍 복지공동체장은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두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군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공동체가 지난달 27~31일 관내 지적 장애 가구를 찾아 집안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디지털 취업기술 양성 교육생 영광군, 15명 모집

화순군은 '2024년 디지털 취업기술 양성 교육 지원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화순군 디지털 취업기술 양성 교육 지원사업'은 2024년 전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화순군이 주관하며 (사)전남고용노동연구원 사업수행을 담당한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또는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관련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지원과 화순군내 사무행정 분야 및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 취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은 화순군 거주(예정) 디지털 분야 취업희망자로 모집 인원은 총 15명이다. 모집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화순 마을공동체 혁신센터(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곡성군,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 20일까지 모바일 앱 '워크온'

곡성군치매안심센터는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20일까지 모바일 앱(워크온)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에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걷기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치매 극복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의 공식 행사일은 전국적으로 매년 4월 둘째 주 토요일이나, 군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20일간 챌린지를 운영한다. 행사는 곡성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0일까지 10만 보 달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다만 무리한 운동을 막기 위해 일일 최대 6000보까지만 인정되며 기간 내 목표 달성자 중 10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모바일 심상상품권 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에 가입한 후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관계자는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통해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 쌀, 프랑스·오스트리아 이어 체코 수출길

'운수대통' 매달 20톤씩 판매 담양군은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체코 아시아 식품 유통전문업체인 'SHINFOOD(대표 최준정)'와 수출 계약해 현지 판매 전용 브랜드인 운수대통 담양쌀 20톤을 지난 1일 선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달 18일 프랑스·오스트리아 수출 초도물량 이후 두번째 대유럽 수출 물량으로 1년간 매달 20톤씩 수출해 현지 한식당 등에 판매될 예정이다. 담양 쌀은 과거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 및 13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8회 대상, 5회 최우수상을 받은 쌀이다. 2022년을 기점으로 미주, 유럽에 300톤을 수출하는 등 국내·외 소비자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체코 식품 유통전문업체인 'SHINFOOD'와 수출 계약해 현지 브랜드 운수대통 담양쌀 20톤을 선적했다. **담양군 제공**

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2022년 준공한 담양군 통합RPC는 유럽 농산물 유통단계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인 농산물우수관리(GAP) 관리시설 인증을 획득했다는 등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2022년 준공한 담양군 통합RPC는 유럽 농산물 유통단계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인 농산물우수관리(GAP) 관리시설 인증을 획득했다는 등

현지의 까다로운 통관절차와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수출 최적화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농산물 수출 확대 등 판로 다변화를 통한 부자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공까지는 3~4년 소요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60억~70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침강지나 인공습지와 같은 환경친화적 수질정화시설과 오염원 유입 차단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3개 지구 저수지 일대 총 282ha에 달하는 농경지에 보다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환경 개선 효과 등이 기대된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

영광·해남·신안 농업용 저수지 3곳 수질 살아난다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3곳이 맑은 물 공급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영광·해남·신안지역 저수지 3곳에 대한 기본 조사를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태안, 충남 보령, 전북 고창, 경남 창원, 전남 영광

·해남·신안 등 7곳을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중 전남은 공사가 관리하는 '영광 봉덕저수지'와 '해남 회원2저수지'를 비롯해 신안군이 관리하는 '봉동저수지' 등 3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올해 기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에 곧바로 세부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내후년께 착공하면 준

농업인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화순군, 자연 재난 대비

화순군은 최근 잦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농작물 재해보험에 약 17억원의 예산을 수립,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가입 대상 농작물은 70종이며 지역별 가입 품목이 다르고 품목별 가입 일정이 각기 달라 농업인이 먼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일정 등을 확인한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하더라도 품목별 파종 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화순=김선종 기자**